

배포 일시	2022. 11. 29.(화) 13:00		
담당 부서	건설정책국	책임자	과 장 안세희 (044-201-3526)
	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사무관 간인숙 (044-201-3529)
보도일시	2022년 11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9.(화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170km 유리터널 도시, 네옴시티에 들어설 주택의 모습은?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 장관 방한... 한-사우디 주택협력 강화 - 29일 주택협력 포럼서 네옴시티 등 스마트시티 비전도 공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우디 마제드 알 호가일(H.E. Majed bin Abdullah bin Hamad Al-Hogail)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, 스마트시티와 주택건설 분야 여러 관심 기업을 방문하고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주택협력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국과의 주택·스마트시티 협력 외교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에, 국토교통부는 사우디 대표단의 방한일정을 지원하고, 11월 29일(화) 오후 3시 30분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『제1회 한-사우디 주택협력포럼』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주택 및 스마트시티 비전과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.
- \* (명칭) 제1회 한-사우디 주택협력 포럼(Korea-Saudi Arabia Housing Cooperation Forum)
- 이날 포럼은 지난 11월 6일 사우디 정부에서 주택과 스마트시티를 담당하는 도시농촌주택부를 방문한 원 장관이 양국의 협력플랫폼으로 제안한 것으로, 마제르 알 호가일 도시농촌주택부 장관의 방한에 따라 전격적으로 개최하게 되었다.
- 이는 한국과 사우디 정부의 첫 주택·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플랫폼으로써, 최근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협력분야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후 양국이 함께 개최하는 첫 행사로 그 의미가 크다.

□ 이날 행사에는 양국 장관을 비롯한 정부, 유관기관, 기업,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주택·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과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.

○ 먼저 사우디 세션에서 도시농촌주택부 알리 라즈히 차관보가 사우디의 ‘스마트 지방자치와 인공지능’을 다양한 사례와 기술을 통해 소개한다. 또한, 도시농촌주택부 압둘라흐만 차관보와 국립주택공사 라이안 부사장이 국립주택공사를 소개하고 이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.

○ 한국 세션에서는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가 대한민국 도시개발 및 주택 정책과 사례를 발표하고, 이어 모듈러주택, 스마트시티, IT, 스마트건설 등 분야별 5개 기업이 한국의 기술과 역량을 소개할 예정이다.

- 포스코건설은 스마트 모듈러 건설기술과 사례를 소개하였고, 현대건설은 건설자동화, 디지털 건설기술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며,

- 네이버는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빌딩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과 로봇, AI, 5G, IoT 기술이 접목된 네이버 신사옥 1784를, KT는 통합도시운영솔루션을 제공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각각 발표한다.

- 또한, 프롭테크 업체인 직방은 모바일 모델하우스,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기술 중심의 주거생활로 전환하는 스마트 홈을 시연한다.

- 특히, 모듈러 주택과 스마트시티 분야는 이번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MOU\*가 체결되기도 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.

\* 모듈러주택 협력MOU : (한)삼성물산 ↔ (사)국부펀드

스마트시티 협력MOU : (한)와이디엔에스 ↔ (사)디지털인공진흥청

□ 한편, 원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“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님께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신 2016년 양국이 주택협력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였고 그것의 실행계획인 주택협력 프로그램을 지난해 함께 마련한 데 이어, 오늘의 주택협력포럼 개최가 지속되는 등 양국 주택협력의 성장에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님의 기여가 크다”고 치하하면서,

- “오늘의 이 포럼은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중요한 협력 모멘텀으로써, 주택 협력 뿐 아니라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 스마트시티 구상을 양국이 함께 해나가는 확장된 협력 플랫폼으로 정례화하자” 고 제안할 예정이다.
- 이에 마제르 알 호가일 주택부 장관도 “양국간 주택협력 플랫폼이 처음으로 가동되는 중요한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” 면서,
  - “오늘 공유하는 양국 정부 및 기업 간의 정보와 기술, 경험은 양국이 함께 새로운 글로벌 도시·주택 협력모델을 창출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” 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.
- 특히, 양 장관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본격화된 미래 신산업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존 주택협력 MOU를 주택·스마트시티로 확대하여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.
- 한편, 11월 28일 입국한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은 11월 29일 네이버를 방문하여 교통, 치안, 위생 등 도시문제 및 주택·건물관리에 대한 한국의 디지털 트윈 등 서비스 기술을 논의·공유하고, 판교 테크노벨리를 방문하여 판교 신도시 현황 브리핑을 청취하였다.
  - 11월 30일에는 서울시장, 삼성물산 사장, LG CNS 사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래미안 갤러리, LG사이언스 파크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하는 등 주택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, 양국간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최근 모하메드 빈살만 왕세자 영예수행(11.17),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인 원팀코리아 사우디 파견(11.4~9), 마나르 알-모니프 네옴CIO 초청 협력회의(GICC 글로벌인프라협력콘퍼런스, 8.30) 개최 등을 통해 사우디 정부와의 협력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.
  - 원 장관은 “앞으로 이러한 협력 모멘텀을 모빌리티, 에너지 등의 분야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” 고 밝혔다.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연내 범정부 차원에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의 정책펀드를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주활동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.

